

근대 문화유산 보호하겠더니... 양림역사문화마을에 흉물주차장

시, 80억 들여 철골주차장 조성

주민들 “경관 해친다” 강력 반발

광주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근대 문화유산 집결지인 ‘양림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마을 입구에 마을 경관을 훼손하는 지상 2층짜리 ‘철골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작 보호해야 할 옛 가옥을 허물고, 흉물스런 주차장을 만든다며 반대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광주시와 양림동 주민 등에 따르면 양림동 파출소 뒤편 주택가에 80억원(공사비 46억원, 보상금 34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3300㎡, 144면짜리 지상 2층 철골 구조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주택·토지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애초 지하 1층~지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하에서 암석이 발견됨에 따라 지상 2층으로 변경했다.

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307억원을 투입해 3단계로 양림역사문화마을을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며, 1·2단계 사업인 순교자 기념공원 정비와 문화 소공원, 근대시립



학교 의료원 기념관 신축 등은 140여억원을 들여 완료했다. 이번 주차장 조성은 3단계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커뮤니티센터(42억원)와 함께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차장 건립에 대해 양림동 주민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양림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양림마을 보호를 위해 활동중인 한 건축사는 “수백억원을 들여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겠다고 해놓고는 되레 옛 가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에서나 볼 수 있는

철골로 짓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옛 정취를 느끼며 둘러보는 것이 양림동의 진맛인데,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됐다. 양림동 인근에 (주차장을)만들고, 조금 걸어오면 되지 않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양림동의 한 주민도 “마을 입구에 철골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이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며, 만약 주차장이 불가하다면 문화마을 이미지와 어울린 친환경 컨셉의 주차장이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특성상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할 경우 자칫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사업이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추진중인 ‘양림역사문화마을’은 1900년대 초 미국 선교사들이 의료·교육·사회복지활동을 펼쳤던 중심지로, 선교사 묘역과 전쟁고아 보육장소였던 우일선 선교사 사택, 선교사 오렌 기념관, 수피야여고 홀, 400년이 넘는 호랑가시나무숲, 수백년 된 참나무·도토리 나무 군락 등 광주를 대표하는 근대 유산과 자연의 보고(寶庫)로 꼽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LG화학 등 여수에 4860억 투자

전남도·여수시, 4개 기업과 협약... 고용 규모 210명

전남도는 11일 오후 여수시청 상ホール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홍석 여수시장, (주) LG화학 등 4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48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고용 규모는 210명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주)LG화학(대표 박진수)은 여수국가산업단지 3200억원을 투자해 아크릴산 16만t과 고흥수성수지(SAP) 8만t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투자로 인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납사-프로필렌-아크릴산-SAP로 이어지는 ‘프로필렌 체인’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우수한 연구개발(R&D) 자원을 투입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여천NCC(주)(대표 박정국·정진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1480억원을 투자해 NCC(나프타 분해설비) 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혼합펜탄(C5) 중에서 고부가가치 첨

단화학의 원료가 되는 성분을치분리해 타이어, 고기능성 점접착제, 석유수지 등의 원료로 활용한다. 흥해개발(주)(대표 김재호)은 여수 신월동에 150여억원을 투자해 컨벤션 및 숙박시설인 여수 히든베이호텔 주변에 유원지를 건립,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 복합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에이치제이(대표 한종표)는 여수 모도동에 30여억원을 투자해 전남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폐패각류 및 수산폐기물을 재활용해 고품위 비료 및 사료를 생산하게 된다.

박준영 도지사는 투자협약식에서 “투자기업들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초산업 분야인 만큼 앞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도와 시군에서도 기업 경영의 어려움 해소 및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원사 위에 ‘현사’ 軍 부서관계급 5단계로

부서관의 최고 계급인 원사 위에 ‘현사’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11일 “최근 각 군 장교와 부사관, 병사 등을 대상으로 신설할 부서관의 계급 명칭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사’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다”면서 “지난 달 백승주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정책회의에서 원사 위에 현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사 계급은 부서관에 관한 군인 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서관 계급은 ‘하사→중사→상사→원사’ 4단계에서 ‘하사→중사→상사→원사→현사’ 5단계로 늘어난다.

한편 군은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해 부사관 계급을 하사→중사→상사→원사 체계로 확립한 뒤 1995년 국방부 주도로 한 계급 증설을 추진했다가 중단했다. /연합뉴스

기적의 ‘토마토 상자’가 퍼뜨린 기부 바이러스

2009년 익명 배달 시작으로

출향 인사들 ‘기부 릴레이’

담양장학회, 66억원 확보

억대 장학금이 든 토마토 상자를 배달 받았던 담양군에 ‘기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재단법인 담양장학회가 보유한 장학금은 이날 현재 66억원가량이다.

2009년 7월 말과 비교하면 20여억원이 늘었다. 담양의 장학금 기부 문화는 토마토 상자 배달 전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담양군에는 2009년 7월 30일 ‘장학금으로 써 달라’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현금 2억원이 든 토마토 상자가 익명으로

배달됐다.

2010년 2월 4일에는 200만원, 2011년 3월 9일에는 1억원이 자양강장제 상자와 양주병 상자에 각각 담겨 전달됐다.

군은 같은 독지가가 전달한 장학금으로 보고 “등불처럼 살고 싶다”는 토마토 상자 안 메모에서 이름을 따 ‘등불 장학회’를 설립했다.

지난해 5월 30일에는 지역 출신 기업인 고(故) 최두호씨의 가족이 고인의 뜻을 받들어 3억원을 ‘최두호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등불 장학금은 기탁자의 의도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최두호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생에게 지원되고 있다.

지역 신문과 소식지를 본 출향 인사들은 계좌 입금으로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

장례 후 조의금 일부를 맡기는 사례도

늘었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나무축제가 끝나면 수익금 일부를 내놓는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식당이 줄을 잇는다.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기부를 강요당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이·취임하면서 사비를 터는 기관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방대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등불 장학금 기탁자의 뜻에 동참해 소액 기부자를 직접 찾아나서 모금에 앞장서고 있다. 등불 장학회의 후원회까지 구성됐으며 5000원, 1만원씩 매월 자동 이체 건수도 88건(66만8000원)이나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최근에는 100만~200만원을 방문 기탁하는 지역민들이 1주일에 2~3명은 있다”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역민이 뜻을 함께하고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꼭 돌아오길... 섬진강변 연어방류

린연어는 30여만마리에 이른다.

제17회 어린이연어방류행사가 11일 오후 구례 간전면 섬진강변에서 열린 가운데 인근 토지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연어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방류된 어구례=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 오리농장 2곳 AI 확진 3만수 전량 살처분

나주 오리농장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난 7일 영광군 묘량면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지 4일만이다.

전남도는 11일 “지난 10일 AI 의심신고가 들어 온 나주시 반남면 김모씨와 양모씨

오리농장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혈청검사를 실시한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H5N8) 여부는 12일 오전께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와 양씨는 각각 오리 2만수와 1만수

를 사육하고 있어 12일께 전량 살처분될 예정이다. 또 이들 농장은 지난달 21일 AI 확진 판정이 난 영암 신북면 강모씨의 오리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위험반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 AI 확진 판정이 난 곳은 이날 나주에서 발생한 것까지 합하면 모두 12건이며, 총 106만1000수가 살처분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백원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1

신세계백화점

백원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